

기쁨언덕 2018년 12월 소그룹 교재 #1

첫째 주 소그룹 모임 제목: 메시아 서곡

첫째 주 소그룹 모임 본문: 누가복음 1 : 26-38

찬송가:

95장(통82) 나의 기쁨 나의 소망되시며

89장(통89) 샤론의 꽃 예수

94장(통102)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여는 질문: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고대하고 기다리는 일은 무엇입니까?

첫아이를 기다렸던 일이 내겐 가장 가슴 벅차고 행복했던 시간이었다. 나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로 준비되어져 가고 있었음 뒤 늦게야 깨달았다. 인생은 기다림이다. 기다림은 소망이다. 기다림없이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가능할까? 기다림은 성도의 삶을 지탱하게 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다. 기도를 통하여 문제의 해결을 기다리며 우리는 인내한다. 하지만, 믿음이 없이는 기다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준비의 시간이며 성숙의 시간이기도 하다. 모세는 광야의 40년의 기다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으며 민족의 지도자로 준비되어졌으니 말이다.

본문 이해

그저 인구 1600명~2000명의 작은 마을에 불과한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인류 역사의 획을 긋는 일이 벌어진다. 그것도 열네 살 정도의 나이 어린, 단순한 믿음을 가진 처녀 아이 마리아라는 인물을 통해서 벌어지는 일이다.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이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다. 사회적 지위는커녕, 그저 어린 여자아이에 불과한 마리아에게는 너무 과분한 인사를 천사로부터 받는다. '은혜를 받은 자'라고 천사가 그녀를 부른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라는 약속의 말까지도 듣는다. 정말 어리둥절하다. 그런데, 이게 웬 마른 하늘에 날벼락인가?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어린 처녀에게 임신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은 그녀의 이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계속 자기의 할 말만 한다.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부르라

한다. '그 아이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는데,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고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라고 한다. 자세히 들어보니, 오래전부터 전해져 오던 그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다. 그런데, 자신이 갖은 아이가 다름 아닌, '메시아'라는 소리다. 이 메시아 예언은 하나님이 당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특히, 이사야를 통해서 700년 전에 이미 하신 말씀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이사야 7:14) 히브리어로 "메시아(Messiah)"란 구원자를 의미한다.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크리스토스(Christos)이다. 이 말의 의미는, 특별한 직무와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the anointed)'라는 뜻이다. 이 메시아란 말은 이스라엘에 '구원'과 '해방'을 가져올 구원자의 상징이었다. 나중에 밝혀지지만, 군중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다. 하지만,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 뜻에 순종하시므로 자신을 고난과 대속의 메시아로 자리매김하신다. 예수님 당시의 군중들과 유대 종교지도자들은, 인간의 죄를 감당하시고 고난의 종이 되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이런 메시아 예수를 인정할 수 없었다. 결국, 그들은 이런 주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박는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다 아시기에, 결국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다. 이 메시아를 어린 여자아이가 순종하므로 잉태한다. 이제 아름다운 구원의 노랫소리가 시작된다. 한 여인의 순종의 고백을 통해서 말이다. 이제 함께 '메시아 서곡'을 노래하자.

말씀 속으로

1. 오늘 본문 말씀의 눅 1:31과 사 7:14을 비교해보면서, 왜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오시게 되었는지 한 번 생각해 보자.

예수님의 탄생은 메시아에 관한 구약 예언의 성취다. 이사야 7:14의 처녀(참고, 알마(ἄλμα)-일반적인 처녀와는 달리, 남자와 격리되어 자라온 동정녀를 강조한 말, 알마가 젊은 여인이라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알마(ἄλμα)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결혼하지 않은 처녀에게 적용되었음)는 동정녀 탄생을 말하는 것으로 처녀가 낳는 아들의 이름, 임마누엘은 메시아 탄생, 구세주 탄생을 가리키는 것이다.

2. 29절에서 천사의 인사를 받던 마리아가 속으로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하고 말하는 의미를 당시의 문화와 관습에 비추어 생각해 보자.

예수님 당시의 인사는 사회적 계층과 지위에 의해 결정되었다. 마리아는 여자인 동시에 아직 어린 사람(열네 살 정도)이었으므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라는 인사는 전통적으로 볼 때, 그녀에게 어울리는 인사는 아니었다. 사실, 마리아는 이 인사를 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의아해 한 것이다.

삶 속으로

1.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서, 만약, 당신과 당신의 가족에게 마리아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당신은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믿음이 없이는 결코 쉽게 용납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만약, 이런 일이 내 가족에게 일어난다면, 기절초풍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이 소식을 직접 전한 것이 아닌가 싶다. 초자연적인 일이기에 천사의 중재가 필요했던 것이다.

2.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에게 임한 임신 사실은 축복인가? 아니면 형벌인가? 당신의 솔직한 심정을 말해 보라.

그 당시의 문화로 보아 이 일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만한 일이다. 당시 유대인들은 결혼에 대한 규율이 엄격했다.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할 경우, 그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다. 율법에 간음한 여자와 남자 둘 다 돌로 쳐 죽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레위기 20:10)

이 사건이 축복으로 받아들여 진다면 당신을 ‘믿음짱’으로 인정한다.

암송구절:

누가복음 1:31(한 주간 동안 암송한 후, 다음 모임에서 서로 암송해보도록 하자.)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녀와의 나눔(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소그룹을 진행하면서 나눌 수 있는 질문이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주시는 메시아임을 믿나요?

1. 만일 천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다면, 여러분은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나요?

천사의 존재를 아이들에게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으면 좋겠다.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들이고 영적인 존재이며, 대표적으로 성경에 소개된 선한 천사들은 가브리엘과 미가엘이다.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용사”라는 뜻을 가진 천사장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니엘(다니엘 8장 16절, 9장 21절)과 사가랴(누가복음 1장 19절)와 마리아에게 전했다(누가복음 1장 26절). 미가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라는 뜻을 가진 천사장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곤경에 처해졌을 때 그들을 위하여 싸우는 천사로 소개되었다 (다니엘 10장 13절, 21절, 12 장 1절).

2018년 12월 소그룹 교재 #2

첫째 주 소그룹 모임 제목: 가버나움의 보기 드문 신앙인

첫째 주 소그룹 모임 본문: 누가복음 7 : 1-10

찬송가:

545장(통344)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뵈어도

357장(통397) 주 믿는 사람 일어나

351장(통389)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여는 질문:

여러분은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몇 %나 믿습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아멘(Amen) '의지한다', '신뢰가 된다'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아만'에서 파생된 말로 '진실로, 참으로, 확실히'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아멘은 다른 사람이 말한 것에 동의할때(왕상 1:36; 렘 28:6), 맹세나 저의 결과를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할 때(민 5:22; 신27:15), 기도나 찬양이 끝날 때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의 의미로 쓰임(대상 16:36; 시 41:13)

100%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기에 우리는 그 말씀의 권위를 100% 인정하는 것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딤후 3:16-17)

본문 이해

갈릴리 해변 북서쪽에 있는 마을, 가버나움에 보기 드문 신앙이 있다. 우리는 그의 이름도 성도 모른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유추해 볼 수 있는 사실은, 그는 이방인 군인이라는 사실이다. 그는 갈릴리 지방의 행정 및 군사 요충지인 가버나움에 있는 로마 군대의 병영에 근무하는 백부장이다.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사역지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전도사역의 중심지였다. 예수님은 공생애의 초기 사역을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펼치셨다. 오늘의 주인공인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쳐 주셨고,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와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와 그 외에도 많은 병자를 고치신 곳이 바로 이곳 가버나움이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집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세관에 앉아 있던 마태를 부르셨던 곳이기도 하다. 예수님 당시 로마의 군대는 한 개의 군단이 6천 명으로 편성되어 있었고, 한 군단을 다시 600명씩 10대로 나누고, 이를 또다시 100명 단위로 나누어, 그 100명을 '백부장'이 지휘하였다. 당시 백부장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오늘날 군대의 중대장보다 훨씬 높은 지위였던 것 같다. 특히, 식민지역에서의 점령군 장교의 권한은 실로 막강한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 주둔했던 로마군대는 치안 유지와 식민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반란을 감시, 진압하는 임무를 수행하였으므로 백성들의 원성과 반감을 사는 일이 허다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은, 이방인 군인이었음에도 백성들의 사랑을 받는 인물이었다. 아마도 유대인을 사랑하고 회당까지 지어주는 등 많은 선한 일을 하는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 같다. 그는 자신의 집을 향하여 오시는 예수님에게 자신의 벗들을 보내어 자신의 집으로 오시는 수고 대신에 자신에게 명령을 하달 하시라고 간청을 한다. 감히, 예수님을 오라 가라 명령하는 오늘날의 성도들과는 대조적이다.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군인답게 자신도 예수님의 명령을 받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씀만 하시면 순종하겠다는 자세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이래야 하지 않을까

싶다. 오늘 가버나움의 보기 드문 신앙인을 만나서 기분이 흡족하신 예수님이 우리들의 지역에 감춰져 있는 보기 드문 믿음의 용사를 보시고 기분 좋으셨으면 한다. 당신이 바로 가버나움의 보기 드문 신앙인이길 기대해본다.

말씀 속으로

1.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백부장 이외에 성경에 나오는 다른 백부장에 대하여 한 번 이야기 해 보십시오.

백부장(Centurion)은 100명의 군인들을 거느리고 있는 로마 군대의 지휘관을 말한다.

로마 군대는 군단들로 조직되어 있었는데, 각 군단은 6,000의 군인들로 구성되었으며 각 군단은 60명의 백부장과 더불어 6개의 보병대를 가지고 있었다. 높은 보수와 로마 사회에서 인정받는 직업이었다. 보통 20년동안 근무하였다.

가버나움의 백부장(본문)

예수님의 처형을 맡았던 백부장(막 15:29-32): 예수님을 모욕하던 대제사장들과 구경꾼과는 다른 반응을 보임.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마 27:54; 막 15:39)

베드로가 만난 백부장, 고넬료(행 10):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

바울이 만난 백부장, 율리오: 바울을 가이사라에서 로마로 호송하였던 사람(행 27:43)

그 밖의 다른 백부장들: 바울이 로마시민권자임을 천부장에게 알린 사람(행22:25)

바울의 살해음모를 알고 있던 바울의 생질을 천부장에게 인도한 사람(행23:17)

2.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백부장은 왜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고 하였을까요? 한 번 이야기 해 보십시오.

혹시나 이방인인 자신의 집에 오신 일로 인해 유대인들에게 비판을 받지나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의 신적 권위와 전능성을 믿었기 때문. 군대의 상하 관계에 익숙한 그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인간인 자기의 관계가 영적인 상하 관계에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만인 앞에서 시인하였다.

삶 속으로

1. 당신은 당신의 아랫사람을 위하여 이 백부장처럼 이 정도까지 헌신할 수 있습니까?

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아래사람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사람들만이 이런 헌신을 할 수 있다.

2. 당신은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는 그분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

암송구절: (한 주간 동안 암송한 후, 다음 모임에서 서로 암송해보도록 하자.)

잠언 3 : 5, 6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녀와의 나눔(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소그룹을 진행하면서 나눌 수 있는 질문이다.)

1. 여러분은 예수님의 명령이라면 무조건 순종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분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

2. 여러분은 다른 나라 사람을 내 민족처럼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 땅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인류애를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2018년 12월 소그룹 교재 #3

첫째 주 소그룹 모임 제목: 주님과 함께하는 벳새다의 향연

첫째 주 소그룹 모임 본문: 누가복음 9 : 10-17

찬송가:

309장(통409) 목마른 내 영혼

310장(통410) 아 하나님의 은혜로

304장(통404)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여는 질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통해 여러분이 체험한 기적들이 있다면, 함께 이야기 해 보자.

교회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의 일이다. 20일 금식을 작정하고 13일째 되던 주일, 처음으로 교회에 오신 어떤 여자 분이 우리 교회의 주일예배를 참석하게 되었다. 예배 후, 몸이 피곤하여 사무실에서 쉬고 있는 데, 교회 집사님이 어떤 분이 상담을 요청하신다고 알리는 것이었다. 식사 먼저 하시고 조금 있다 상담하시자고 해도 막무가내시란다. 어쩔 수 없이 상담을 하고 간절히 기도해드렸다. 그런데, 그분이 헌금을 하고 싶다고 하셔서 교회 회계집사님을 불러 드렸더니, 그 헌금 봉투에 그 달에 부족한 \$2000정도가 들어있다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계획은 믿고 의지하는 백성에게 오늘도 이루어짐을 믿는다.

본문 이해

저 멀리 파란 쪽빛의 갈릴리 호수가 지평선 너머로 넘실거린다. 그 가운데 넓은 풀밭이 자리를 폈다. 그곳에서 수천, 아니 수만의 사람들이 자유로이 앉아 누군가의 말씀을 기다린다. 이곳은 '어부의 집(House of fisherman)'이란 의미를 지닌 '벧새다' 옆의 빈들이다. 이 많은 사람이 동네로 들어가 끼니를 해결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렇다고 이 빈들에 음식이 준비된 것도 아니다. 제자들이 주님 눈치만 본다. 주님께서 가장 계산이 빠른 제자, 빌립에게 "Where can we buy bread to feed all these people?"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고 물으신다. 빌립이, "배 불리는 먹지 못하더라도 조금씩만 주려고 해도 200데나리온 정도(약 2천만 원)의 비용이 들겠습니다."라고 대답한다. 이때, 안드레가 보리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와, 이걸로는 턱도 없겠지만, 이것이라도 보태시라고 한 가족이 겨우 먹을 만큼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내민다. 말도 안 되는 양이다. 남자만 5천 명이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계산하면 적어도 2만 명분의 음식이 필요하다. 이 와중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누군들 예측할 수 있었으랴! 드디어, 주님의 축복 기도와 함께 벧새다의 향연이 시작된다. 간교한 헤롯의 칼날에 세례 요한이 희생된 후, 시국이 어수선하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 명절(유월절)을 예루살렘에 보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유월절 명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지 못해 많이들 섭섭했는데, 오히려 더 잘된 일인지도 모른다. 예루살렘에서는 이 많은 사람이 함께 모이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갈릴리의 빈 들에 유월절

의 성만찬이 차려진다. 죄인을 대속하시기 위해, 머지않아 유월절의 희생양으로 십자가를 지실, 자신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실새 없이 떼시는 주님, 그 떡을 받아 잔칫집의 음식을 나르는 일꾼들처럼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제자들, 그 떡과 물고기를 받아 허기진 배를 채우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군중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벳새다의 향연은 그렇게 물어 익어간다. 나누고 또 나누고, 먹고 또 먹는다. 이미 모두가 배불러 더 먹기가 힘들다. 열두 바구니의 남은 조각은 잔치가 얼마나 풍성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다.

이곳에 얼마나 많은 주님의 발자취가 서렸던가? 사랑하시는 제자, 빌립과 안드레 그리고 베드로의 고향이었던 이곳에 주님은 얼마나 많은 연민의 정을 느끼셨을까? (요 1:44; 요 12:21). 이런 역사적이고, 풍성한 은혜를 간직한 사역의 장소가 회개하지 못하고 그 유명을 달리한다. 풍성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끝내 회개하지 못하고 흙더미 속에 파묻혀 버렸던 벳새다가, 1987년 어느 날, 라미 아라브(Rami Arav)에 의해 세상 밖으로 그 모습을 드러냈다. 요단강 동편, 갈릴리 호수 북쪽에서 2 km 떨어진 옛-텔(et-Tell)이 바로 그 역사의 현장 벳새다였다. 너무나 허물어져 너무나 망가져 버려 아무도 그곳이 그 벳새다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다. 무리도 아니다. 그 흙더미 속에 파묻혀 버린 그곳을, 주 후 1세기경 어업을 생업으로 했던 생기 넘쳤던 도시라고 누가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는가?

벳새다의 향연의 기쁨은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만 것이다. 우리도 오늘의 축복이 역사 속에서 파묻히지 않고 찬란한 영광으로 이어지기를 원한다면, 이 벳새다를 향한 주님의 경고 말씀에 귀 기울이자.

“화가 있을진저 고라신아 화가 있을진저 벳새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마 11:21-22)

할 수만 있다면, 저물어가는 갈릴리의 석양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그곳에서 ‘벳새다의 향연’을 다시 열고 싶다. 다시 갖는 향연에서는 주님을 귀빈석에 편히 앉혀드리고, 은혜받은 우리가 수고를 마다치 않고 주님을 서브하며 즐거운 식사를 나누면 어떨까?

말씀 속으로

1.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빈 들에서의 식사와 예수님의 '최후 만찬'에 등장하는

식사를 비교해보면,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다른지 한 번 생각해 보자.

같은 점: 유월절의 성만찬 다른 점: 벳새다의 식사 - 은혜를 망각함, 최후의 만찬 -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 짐.

2. 12절의 '빈 들'은 어떻게 풍성히 채워질 수 있는지, 본문 말씀을 토대로 생각해 보자.

빈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 주님의 풍성한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요한복음 6:58)

삶 속으로

1.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함께 이야기해 보자.

홍리사역을 하면서, 학원선교를 하면서 주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절실히 필요할

때가 많다. 우리들의 순종과 헌신이 오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위한 한 어린아이의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가 아닐까?

2. 기적의 체험과 믿음은 꼭 정비례한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의 생각을 말해 보시오.

믿음 있는 사람들만이 기적을 체험하는 것은 아니다. 홍해를 건넌 이들 중에 상당수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암송구절: (한 주간 동안 암송한 후, 다음 모임에서 서로 암송해보도록 하자.)

베드로후서 3:18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자녀와의 나눔(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소그룹을 진행하면서 나눌 수 있는 질문이다.)

1. 14절처럼 예수님 당시에는 여자와 어린아이는 사람을 셀 때, 숫자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함께 얘기해 보자.

인간들의 세상이기에 모든 것이 다 옳고 정의로운 것은 아니다. 시대에 따라 수많은

오류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다. 시대의 한계성을 이해한다면

이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2018년 12월 소그룹 교재 #4

첫째 주 소그룹 모임 제목: 누가 의로운가?

첫째 주 소그룹 모임 본문: 누가복음 18 : 9 -14

찬송가:

292장(통415) 주 없이 살 수 없네

293장(통414) 주의 사랑 비칠 때에

303장(통403) 날 위하여 십자가의

여는 질문: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의롭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Not Perfect But Forgiven'(잘나서가 아니라 용서받은 것이다)의 의미를 되새기며 오늘 말씀을 함께 시작해 보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하면 자신이 의롭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갖기 마련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

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 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전 15:8-10)라고 고백했다.

본문 이해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품으시는 구원의 마음의 본질이 긍휼이다. 다른 이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야말로 이 삭막하고 메마른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리스도의 마음임을 새삼 깨닫는다. 세상은 물질에 눈이 멀어, 중심을 잃고 거짓과 위선에 물들어가지만, 선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는 긍휼과 자비가 넘쳐나는 측은지심의 세상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타인의 삶에 대해 측은지심이 있느냐. 그것이 진보와 기득권 세력의 본질적 차이입니다. 그 마음은 동정심이 아니라 인간 존재 자체에 대한 이해입니다. 나 또한 그런 인간이고, 그것에 공동의 책임을 느끼는 것, 그런 이해가 없이 좋은 정치를 할 수 없습니다.”* 정치인 심상정의 말이다. 진보와 보수를 규정짓는 그의 말이 꼭 옳은 것은 아니나,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940만 노동자들의 아픔과 고통을 대변하는 심블리, 심상정의 측은지심(惻隱之心)이 느껴지는 말이기엔 마음에 와닿는다. 과연,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세리와 죄인들에 대하여 종교적 우월감을 가지고, 자신들의 의를 자랑하는 바리새인이 나온다. 철저한 원칙과 규칙을 지켜가는 그들의 준법정신은 가히 칭찬과 존경을 받을 만하다. 하지만, 율법의 정신을 놓쳐버린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이 과연 긍휼과 자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상달 될 수 있을까 싶다. 맹자는 인간이 가져야 할 '네 가지 마음(사단, 四端)'에 대해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적었다.

無惻隱之心 非人也(무측은지심 비인야) 無羞惡之心 非人也(무수오지심 비인야)
無辭讓之心 非人也(무사양지심 비인야) 無是非之心 非人也(무시비지심 비인야).
惻隱之心 仁之端也(측은지심 인지단야) 羞惡之心 義之端也(수오지심 의지단야) 辭讓之心 禮之端也(사양지심 예지단야) 是非之心 智之端也(시비지심 지지단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부끄러운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사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옳고 그름을 아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어짐의 시작이고,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은 옳음의 시작이고, 사양하는 마음은 예절의 시작이고, 옳고 그름을 아는 마음은 지

혜의 시작이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긍휼이시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바리새인의 위선과 교만이 먼 별나라에서나 발견할 수 있는 특별한 모습이 아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며, 우리의 현주소다.

이제는, 위선과 거짓의 가면을 벗고 의로움의 자리에서 내려오자. 그리고 가슴을 치며 자신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자신은 죄인이라고 기도하는 세리의 모습을 회복하면 어떨까?

말씀 속으로

1.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한번 말해 보자.

‘바리새’란 ‘분리된 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페루심’에서 온 말이다. 마카비 시대(BC

135년경)에 최초로 등장했다. 바리새인들은 에세네파, 사두개파와 유대의 3대 분파 중의

하나로, 신약시대에 가장 큰 세력을 지니고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들이다. 이들 중에는.

대율법학자나 경건한 지도자들이 많았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은

대략 6천 명 가량이었다. 천사와 영의 존재, 부활 등을 믿었으며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었으나 헬라 문화에 대해서는 거부했다.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도 영향력 있는

바리새인이었다.

2. 11절의 바리새인의 감사는 도대체 가능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속으로도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한 것일까? 한번 각자의 생각을 말해 보시오. 영적인 교만에 빠진 사람들은 충분히 가능하다. 자신이 죄인 인줄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한 크리스천이다. 현대의 크리스천이 자신의 죄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한.

기준의 잣대가 다른 것도 이런 맥락에서이다.

삶 속으로

1. 여러분은 1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것과 십일조 생활을 충실히 하고 있는가? 만약, 하고 있다면, 왜 하며 어떤 유익이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자.

금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금식의 주제는 ‘의로움’이다. 형식의 의로움이

아니라, 삶의 예배를 통한 의로움이 금식의 의미이다. 금식의 유익은 신앙의 유익과

건강의 유익과 정신의 유익이 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주며 멍에의 줄을 끌러 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사야 58:6)

십일조는 성도의 의무이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성도의 자세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이 온전한 십일조의 삶을 살 수 있다.

2. ‘죄인’과 ‘회개한 죄인’의 차이에 대해 당신의 생각을 말해 보시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믿고 회개한

죄인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는 더이상 죄의 백성이 아니다.

암송구절: (한 주간 동안 암송한 후, 다음 모임에서 서로 암송해보도록 하자.)

마태복음 12 : 7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

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자녀와의 나눔(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소그룹을 진행하면서 나눌 수 있는 질문이다.)

1. 여러분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친구에 대해 보통 어떤 마음을 갖고 있나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아야 할 죄인들임을 기억하자. 편견은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데, 큰 장애물이 된다. 정죄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자.

2018년 12월 소그룹 교재 #5

첫째 주 소그룹 모임 제목: 세상을 바꾸어 가는 정의로운 사람들

첫째 주 소그룹 모임 본문: 누가복음 23 : 50 -56

찬송가:

461장(통519) 십자가를 질 수 있나

453장(통506) 예수 더 알기 원하네

442장(통499)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여는 질문:

우리는 정의로운 것을 강하게 만들 수가 없어서, 강한 것을 정당한 것으로 만들었다.(Unable to make what is just strong, we have made what is strong just.)라는 파스칼의 말을 떠올리면서 정의에 대해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시작해 보자.

정의는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기준에 따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다. 정의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리고 회복하는 것이다. 정의로운 것을 정의롭게 할 수 있는 힘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능력 뿐이다. 타협과 변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들의 생각과 뜻을 펼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의 발로이다. 진정한 정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이 땅에 펼치는 것이다.

본문 이해

아리마대 요셉, 그는 그 시대의 진정한 엘리트다. 삶의 무게를 짊어졌던 지식인이다. 많은 사람이 로마의 공권력, 기득권의 횡포, 그리고 성난 군중의 폭력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있을 때, 그는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할 수 있었던, 사람이다. 그러하였기에, 그는 빌라도에게 나아가 예수님을 장사 지낼 수 있게 해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다. “공부하는 목적은 문제해결을 위한 지혜를 배우는 것이며, 단순히 논문 한 편, 전공과목 몇 과목을 듣는다고 해서 인생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그 안에서 절대 포기하지 말고, 자기 자신 혼자서 이루어 내는 과정을 견뎌내는 것이 중요하다.”... “인문학을 배우기 전에는 욕이나 주먹이 먼저 나갔어요. 그런데 이젠 그렇지 않아요. 나를 설명할 수 있게 됐거든요.” 인문학의 교육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클레멘트 코스’의 오픈코스웨어(OpenCourseWare, OCW는 대학에서 실제로 진행되는 강의를 온라인을 통해 청강 할 수 있게 만든 일종의 지식 나눔 프로그램이다.)에서 나오는 말이다. 사람들은 아는 것을 실력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아는 것은 실력이 아니다. 삶 속에서 실천(Practice)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힘이고 실력이다. 옛말에도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 ‘청산 속에 묻힌 옥도 갈아야 빛이 난다’라는 말이 있다.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쓸모없다는 말이다. 쓸모없는 것은 고사하고, 해악이 될지도 모른다.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는 마라. 깨닫고 바로 잡으면 된다. 아리마대 요셉도 그랬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당당하다.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는 그가 침묵했는지 아니면, 불의 맞서 저항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지금은 세상과 맞서 정의로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사실이다. 베드로가 누구였는가? 마가복음 14장 54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쪼더라’라는 말씀이 있다. 그때의 정황은 예수님께 불리한 증언을 하는 무리가 별별 모함과 야유와 거짓으로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멋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광기 어린 군중들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자로 규정하며 침 뱉고, 예수님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마구 후려치는 그런 끔찍한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자신의 약속처럼 용감하게 앞으로 나와 주님을 대변하기는커녕 멀찍이 떨어져 쫓으며 숨어 있었다. 제사장의 하속들 틈에 끼여 불을 쪼다가,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는 끔찍한 잘못을 저지르기까지 한다. ‘멀찍이’라는 말은 안전이 보장되는 거리라는 의미로, 주님을 따르기는 하지만 생명을 바쳐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되 자신의 삶이 위협받지 않는 적당한 거리에서 신앙생활

을 하는 우리의 모습을 말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목숨 걸지 않고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멀찍이서 따를 때 성도는 시험에 들게 되어 있다. 하지만, 성령님은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난날의 부끄러움을 떨쳐버리고 회복되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회개시키며 세례를 받게 하는 축복의 종이 된다. 사단은 죽이고 파괴하지만, 성령님은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어 가는 제자가 되게 하신다.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이 정의로운 길로 나와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가자.

이제, 빌라도와 같은 세상의 권력 앞에서 당당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또 다른 아리마대 요셉을 기대해 보자.

말씀 속으로

1.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공회위원이 무엇인지 한번 말해 보자.

공회의 기원은 모세를 돕기 위해 세운 70명의 장로에게서 시작되었다.(민 11:16)

구약에서는 총회(민 19:2; 20:12; 신9:10; 18:16)와 회중(출 12:19; 16:22; 레 4:13; 8:4-5;

민 1:18)으로 번역되었다.

신약에서의 공회는 유대인들의 최고의결기구인 산헤드린공회를 말한다.

최고의장은 대제상이고 구성원들은 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로 70인정도이다.

2. 53절의 말씀을 보면서 사 53:9 말씀과 한번 비교해 보자.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바위에 판 무덤 vs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부자의 무덤에 장사됨)

부자들의 무덤은 바위를 파고 묘실을 만들어 관을 그 안에 넣고, 커다란 돌로 입구를

봉함.

삶 속으로

1. 당신은 숨어있는 제자 쪽입니까? 아니면, 아리마대 요셉과 그를 따라 무덤으

로 갔던

갈릴리 여자 쪽입니까?

위험 가운데에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성도라면 순교의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증거해야 한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마 10:32-33)

2.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사는지 한번 말해 보시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렇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히 11:16)

더 나은 본향을 바라 본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살 수 있다.

암송구절: (한 주간 동안 암송한 후, 다음 모임에서 서로 암송해보도록 하자.)

시편 1 : 1, 2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녀와의 나눔(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소그룹을 진행하면서 나눌 수 있는 질문이다.)

1. 여러분은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무슨 일을 하는지 한번 말해 보세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세계평화를 위해 애쓰는 거창한 일이

아니라,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의 착한 일들을 통하여 나타내는

일이다.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그들의 아픔을 조금이나 같이 하고자 하는
선한

마음 같은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의로운 일이다.